

7.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북한연구실 실장

수령에 빠진 이라크 전쟁,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손상, 금융위기, 내부갈등 등 대내외적 위기에 빠진 미국이 11월 4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를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였다. 캠페인 기간 내내 오바마는 ‘변화’를 강조하였고 이는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바마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고 지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독주를 끝내겠다고 하였다.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국이 느끼는 위협을 다른 나라에게 가르치려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원칙하에 움직이겠으며 그 예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관타나모 기지의 폐쇄를 공언하였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친구 아니면 적이다”라는 이분법으로 유럽을 나누어 다루었던 것을 비판하고 외교력의 복원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16개월 내 이라크 철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비롯한 테러지역에서 반테러 활동의 2배 증가, 비핵화 등을 꼽고 있다.

오바마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북·미관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며 미국 포용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하였다. 캠페인 기간 중 공화당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오바마의 정책방향을 보면 테러지원국 해제로 모멘텀을 얻은 북·미관계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과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키고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목표하에 정권교체를 추진한 부시 행정부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총체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더욱이 김정일의 건강악화를 고려한다면 마음이 급한 김정일 위원장이 내부안정을 도모하고 후계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북·미관계 개선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북·일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포용정책은 오히려 북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는 캠페인 기간 중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4년 내에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핵무기가 생산되는 것을 금지하여 핵무기의 확산을 감소시키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NPT체제를 강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폐기라는 목표로 적극적인 포용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미국의 신

퇴회복과 관계개선 여부는 곧이어 다가올 핵검증 단계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1단계 검증 프로토콜에 따라 북한이 핵사찰에 협조적으로 나오느냐가 일차적 관문이 될 것이다. 이후 2단계 검증대상인 핵무기, 핵확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 북·미간 순조로운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김정일의 건강악화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김정일의 건강회복이며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부결속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대외 긴장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다. 뼈라살포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악화라는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바마가 양자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다자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는 테러와 핵프로그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관련국들의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였다. 특히, 오바마는 중국을 적대시하기 보다는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공통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관계 속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구실삼아 핵프로그램을 개발해온 북한 정권으로서는 핵개발의 명분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북한에게 기회이자 도전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